

PRESS RELEASE

에스디바이오센서, 파나마 체외진단 유통사 '미래로'社 인수

- ▶ 미래로社, 중미 인근 국가의 물류 기지 역할을 담당할 예정
- ▶ 파나마를 중심으로 중미/카리브해 시장 점유 확대 계획

글로벌 체외진단 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 각자대표 이효근, 허태영)가 파나마 소재 체외진단 유통사 '미래로'社를 114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미래로(MIRERO Corp.)사는 2004년 파나마에 설립된 체외진단기기 유통·판매 기업으로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신속 진단브랜드 'STANDARD Q', 형광면역진단 브랜드 'STANDARD F' 제품을 중미/카리브해 국가 전역에 납품하고 있다. '미래로'사는 중미 시장에 탄탄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으며 인근 국가에 상온 제품을 납품할 경우 물류 기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금번 인수로 북미(메리디언 바이오사이언스)-중미-남미(에코 다이그노스티카)에 각각의 직판 체제를 확보하였으며 미주 전 대륙으로의 시장 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중미/카리브해 체외진단시장 규모는 현재 4억 2,900만 달러(한화 약 5,500억 원)로 2027년에는 4억 6,400만 달러(한화 약 6,021억 원)까지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파나마의 경우 2023년 기준 2,800만 달러(한화 약 363억 원)에서 2027년에는 4,100만 달러(한화 약 532억 원)까지 연간 10%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¹⁾ 또한, 감염성 분자진단 시장은 연평균 12.5%로 고성장이 예상되어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신성장동력인 신속 분자진단 플랫폼 STANDARD M10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스디바이오센서 관계자는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이번 인수를 통해 호흡기 질병 진단 제품을 시작으로 HPV, Dengue, 당뇨병 등 현지 질병에 특화된 진단 제품을 공급해 중미/카리브해 시장 점유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직판 체제를 추가 구축하여 이를 통해 글로벌 체외진단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자료 출처

1) Leading Market Research 'Panama Infectious Disease Testing Market' - Growth Opportunities, Supplier Shares, Segmentation Forecasts